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결혼이주여성 인식 연구*

이지영**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5.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 |
| 2. 선행연구 및 분석대상 | 6. 서울시 결혼이주여성 초점집단면접 조사 |
| 3. 서울시 다문화가족 현황 | 7. 나오며 |
| 4.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 | |
-

■ 국문초록

본 글의 목적은 가족센터 통합 시행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시를 사례로, 주요 정책 수요자인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센터 통합과 그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및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센터 통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다문화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차별감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자녀 언어발달지원, 입학정보 제공, 상담, 결혼이주여성 정서상담, 한국어 교육에서 높았으나, 한국어 심화과정 부족, 강사 역량 편차, 프로그램 다양성 한계, 출신국 통번역 인력 유무에 따른 정보 접근 격차가 개선 과제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취업 관련 자격·디지털 역량 강화 등 자립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적 여부에 따른 대상 선별을 완화하고 이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25S1A6B5A02004223),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사회로의 통합연구」 내용의 일부를 가필 수정하였음.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제공에 대한 바람이 컸다. 본 글은 가족센터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통합서비스의 지역별 이용·만족 실태 점검, 보편 서비스와 특수 수요를 결합한 지원 강화, 통합 운영을 정확히 반영하는 성과관리·통계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다문화가족, 가족센터, 사회통합,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1. 들어가며

전 세계 이주민¹⁾ 수는 1990년에 1억 5,300만 명에서 2020년 현재 2억 8,100만 명으로 30년간 약 1억 2,800만 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의 3.8%에 달한다.²⁾ 21세기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국제이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초국적 가족³⁾과 다문화가족⁴⁾의 증가일 것이다. 국제이주에 의해

- 1)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이주를 ‘국내이동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타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광의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주, 이민의 정의는 아직 없다. 이민에 대한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된 1997년의 유엔사무총장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이민이란 ‘거주지 이외의 국가로 이동하여 적어도 12개월 간 당해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주민은 등록된 외국인을 칭하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에서 원문을 인용할 경우는 외국인을 그대로 사용한다.
- 2)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24, 2024, 22면.
- 3) 초국적 가족은 노동, 결혼,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의 국제이주로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가족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냄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의 복지와 가족이란 소속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족을 의미함(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29면).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2011년과 2014년의 동법 개정으로 혈통주의가 약화되고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촉발된 이러한 양상에 있어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19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민은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 11월 1일 현재 252만 명에 이르며 총 인구 대비 4.9%를 기록하고 있다.⁵⁾ 한국으로의 이주는 아시아 역내 이주라는 특성을 지니며 비숙련 단순 노동력의 노동이주, 그리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한 결혼이주가 대다수를 차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초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농후계자단체나 여성단체, 지자체에서 한국계 중국 여성과의 결혼을 적극 주선하면서 시작된 결혼이주는 1999년에 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급증하게 된다. 2000년에 1,385명의 필리핀 여성이 결혼이주한 것을 필두로 태국,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들로 확대되면서 결혼이주가 본격화된 것이다.⁶⁾

결혼이주의 본격화는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주민의 단기체류와 관리·통제를 중심으로 했던 한국의 이주민정책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2006년에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 초기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심은 이주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차세대 구성원을 출생, 가족을 형성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과 그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정책의 출발에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된 가족위기, 가족체제 담론이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위기가 곧 전체 사회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는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하여 중앙,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표준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정책이 실시되었다.⁷⁾

포함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 5) 법무부,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3.
- 6) 정기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작용: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8, 76~78면.
- 7) 류도향·김청우·강의혁, 「가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문지표 제언」, 『철학·사상·문화』 3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292면.

이러한 가운데 2006년부터 정부의 이주민정책이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여성가족부⁸⁾가 주무기관이 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2008년에 별도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성립되면서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이 실시되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로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주민과 다문화, 다문화정책을 가시화하였고, 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정책은 최근 10년 간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의 변화이다.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형태에 대한 개별적 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특히 국제결혼의 추이가 하향 정체되면서 다문화가족 관계의 질과 안정적인 가족 구성, 유지를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이 요구되고 이들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예산과 조직의 통합으로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된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원화되어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한 후 2016년부터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사업 목적은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문화가족에게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⁹⁾

2021년에는 ‘가족다양성 인정’을 목표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8) 여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됨.

9) 박복순 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3면.

발표되고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가족, 북한이탈가족, 입양가족 등이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글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부터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센터의 통합과 통합 이후의 다문화가족정책 변화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달체계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및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분석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센터로의 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이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족정책 중심의 통합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구별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간주하여 보편적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괄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적합하다는 정책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를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둘째는 이주민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정책으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체 이주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다.¹¹⁾ 전달체계의 통합과 분리, 정책적 보편성과 특수성, 다

10) 이승미·송혜림·라휘문·박정윤, 「가족복지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15면; 송혜림·박정윤·진미정·정지영,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 논의에 대한 제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49~71면.

11) 김정흔,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한국다문화교육

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둘러싼 이와 같은 정책이념의 차이는 가정학과 이주 연구 등 연구자 간,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기관 간의 논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정책이념을 아우르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 세 번째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달체계의 분리와 통합 자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¹²⁾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국 가족정책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되고 다문화가족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결혼이주 여성은 가족센터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과 다문화정책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본 글은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민 사회통합이라는 큰 과제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결혼이주여성이다. 서울시는 2014년에 자치구 중 관악구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9년까지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가족센터로의 통합을 실현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가족센터 최다 이용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인식과 만족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기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관종사자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각각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연구는 가족센터 통합 이전이거나 통합 진행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통합 초기의 최새은 등의 연구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양자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연구의 혼합방법론으로 접근하여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 다음과 같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이용자들이 통합 센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프

학회, 2017, 89~124면.

12) 주정,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개편에 관해서」, 『젠더와 문화』 7(2), 계명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2014, 245~285면.

로그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다문화가족의 평가가 비다문화가족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 센터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만남의 장으로서 인적 교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선점으로는 종사자의 잦은 교체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의 교류를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거론되었다.¹³⁾

본 글은 가족센터 통합과 통합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된 이후의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선행연구의 후속 연구의 하나로 위치 지을 수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다.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글은 먼저 최근 10년간 다문화가족의 현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가족센터의 통합 과정과 그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책환경적 맥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3. 서울시 다문화가족 현황

2023년 현재 서울 거주 이주민은 약 44만 명, 서울시 인구의 4.7%로 인구 21명 중 1명이 이주민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자치구는 10곳이며, 이 중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는 10%를 상회한다. 이주민 비율 5%가 다문화정책이 적극 도입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때 현재 서울시는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다문화가족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2015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의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중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주민자녀에 대한 각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한다.¹⁴⁾

13) 최재은·김미영·손서희,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통합 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15면.

14)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https://www.mois.go.kr>/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표 1〉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자녀 현황(2015~2023)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외국인 근로자 | 102,081 | 85,878 | 70,077 | 80,567 | 75,322 | 63,526 | 49,668 | 43,667 | 41,962 |
| 결혼 이민자 | 27,573 | 33,139 | 32,061 | 32,677 | 33,281 | 31,661 | 31,098 | 31,777 | 31,675 |
| 외국인 주민 자녀 | - | 30,761 | 31,052 | 32,930 | 36,532 | 36,336 | 38,376 | 39,076 | 39,729 |
| | | ① 2,666 ②28,095 | ① 2,728 ②28,324 | ① 2,922 ②30,008 | ① 3,032 ②33,500 | ① 3,927 ②33,039 | ① 3,481 ②34,895 | ① 3,571 ②35,550 | ① 3,503 ②36,226 |

출처: 필자 작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외국인근로자¹⁵⁾는 2015년 102,081명에서 2023년에는 41,962명으로, 총 60,119명 감소했으며 비율로는 58.9% 축소됐다. 이는 서울시 주거비용의 폭등과 경기·인천 지역의 신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결혼이민자¹⁶⁾는 2015년 27,573명에서 2023년 31,675명으로 총 4,102명 증가했으며 1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COVID-19 팬데믹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결혼이민자는 2023년 현재 2,000명대가 넘는 구로구와 영등포구 외에도 16개 자치구에서 1,000명이 넘는다. 지속적인 결혼이민자와 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외국인주민자녀¹⁷⁾ 현황에 관해서는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와 ‘국내

15)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서 전문인력(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과 단순인력(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을 포함한 것이다.

16)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거주 국민배우자, 영주 국민배우자, 국민배우자, 자녀 양육, 혼인단절, 그 외 체류자격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17) 외국인주민자녀는 한국인과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 및 국적취득자의 자녀로, 국내출생 자녀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의 구분이 신설되었으며, 0~18세의 국제결혼 초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외국인, 귀화)로 다문화자녀만이 대상

출생자녀'의 구분이 신설된 2016년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표 1>의 외국인주민자녀의 ①은 귀화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 수를, ②는 국내출생 자녀 수를 나타낸다. 외국인주민자녀는 2016년 30,761명에서 2023년 39,729명으로 총 8,968명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29.2%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출생아수가 75,536명에서 39,456명으로, 총 36,080명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47.8%였다. 이에 비하면 외국인주민자녀 수의 증가는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도 소폭의 증감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다문화자녀의 증가와 다문화가족 구성의 다양화일 것이다. 결혼이주가 본격화된지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다문화가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입국 결혼이주자의 감소, 장기 거주 결혼이주자·귀화자의 증가, 결혼이주자의 적응 수준 분화, 학령기 자녀 증가, 한부모 가족 발생, 재혼 가족 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특성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¹⁸⁾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린 시절 모국에서 보내다 한국인과 재혼한 부모의 가족동반으로 입국한 자녀와 국내 출생 이주민 자녀이다. 다문화자녀 외에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이 지역 사회와 공교육 현장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가족센터 통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4.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때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관악구가 최초로 이에 참여했으며 2015년에는 영등포구와 서초구가 추가로 참여했다.¹⁹⁾ 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건강가

이며,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는 제외된다.

18) 이혜림, 『경남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경남여성가족재단, 2022, 3~4면.

〈표 2〉 서울시 가족센터 통합 현황²⁰⁾

|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가족센터 통합 |
|------|---|--|--|
| 2004 | 용산구 | | |
| 2005 |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 | |
| 2006 |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등포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 동대문구 | |
| 2007 | 금천구, 서울시(거점 센터) | 영등포구, 성북구, 동작구 | |
| 2008 | 강서구, 양천구 | | |
| 2009 | 노원구, 강동구 | 송파구 | |
| 2010 |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관악구, 구로구 | |
| 2011 | | 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 |
| 2012 | | 중구 | |
| 2013 | | | |
| 2014 | | | 관악구 |
| 2015 | | | 영등포구, 서초구 |
| 2016 | | |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종로구 |
| 2017 | | | 강동구, 동작구, 성북구 |
| 2018 | | |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
| 2019 | | | 광진구, 중구 |
| 2022 | | | 서울시(거점 센터) |

19) 여성가족부, 『20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1)』, 2016, 3~5면.

20) 서울시가족센터, 『2022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3, 12~13면 자료에서 작성함.

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혼재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9년에 25개 자치구 전체, 2022년에는 서울시 거점센터의 통합으로 100%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가족센터는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2016년에 통합서비스 개시 때 가족센터 통합 조직의 예시로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림 1] 대상별 분류



[그림 2] 기능별 분류

첫째는 대상별 분류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능별 분류로 다문화가족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²¹⁾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각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2025년 5월 기준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한 곳을 제외한 24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은 다문화가족 전담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16곳은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기능별로 조직을 구성, 가족서비스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해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사업과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별도지원사업(특성화사업)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²²⁾

| | |
|----------------|--|
| 기본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영역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 성평등영역프로그램(배우자부부교육 등) ■ 인권영역프로그램(다문화이해교육 등) ■ 사회통합영역프로그램(취업지원, 자조모임 등) ■ 상담영역프로그램(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 홍보 및 자원연계 |
| 별도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 결혼이민자멘토링사업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

21) 여성가족부, 2016, 13면.

22) 여성가족부, 『2017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114면.

〈표 4〉 가족센터 영역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주요 내용²³⁾

| | |
|---|---|
| <p>가족 관계</p> | <p>■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성평등, 가족간 성평등 인식고취 등 성평등 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및 인권감수성 교육 등</p> <p>■ 이종언어 가족환경조성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이종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이종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종언어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사업</p> <p>■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대상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정체성·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존 서비스 기관과 연계 등</p> |
| <p>가족 돌봄</p> | <p>-</p> |
| <p>가족 생활</p> | <p>■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내·외부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서비스</p> <p>■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자격증·면허증 반 운영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p> <p>■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기본학습을 지원하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p> |
| <p>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p> | <p>■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다문화가족 자조모임</p> <p>■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돌봄 및 성장 지원, 결혼이민여성 자조활동, 지역사회 통합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소통을 위한 공간 지원</p> <p>■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한국생활 초기적응이 이루어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본인의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관련서비스 탐색,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p> <p>■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지원</p> <p>■ 다(多)함께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공존을 유도</p> |

23) 여성가족부, 『2022 가족사업 안내(1)』, 2022, 95~99면에서 작성함.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가족센터 통합과 통합서비스 개시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선 기본사업은 <표 4>에서와 같이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3개 사업영역에 통합되어 실시되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되었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역할 지원 및 가족상담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혹은 가족특성별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사업이다.

가족돌봄 영역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한부모·조손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특정 가족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사업,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특정한 서비스 대상에 맞춰진 사업들이 운용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초기정착지원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이음사업, 다(多)함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²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기본사업은 보편적 가족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상기와 같이 4개 분야에 통합, 실시되게 되었다면 별도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통합 이후 별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7년 연간실적보고서에서부터 확인 가능하다. 2017년, 2022년, 2024년 각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별도지원사업 영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고선강 외,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51~52면.

〈표 5〉 다문화가족 대상 별도지원사업 영역²⁵⁾

| 2017 | 2022 | 202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한국어교육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이중언어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2024년 현재 별도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 교육서비스, 자녀 생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과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초기지원, 일상생활, 교육지원, 사회생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그리고 이중언어 부모,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지원, 마지막으로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사전 교육과정, 총 7개 과정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이다. 다문화가족 특성 변화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책 수요의 다변화와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가 진행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이중언어 교육의 중시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센터 통합으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원화 되었던 가족정책이 일원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유예가 필요하다. 가족센터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지원사업은 기존의 틀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17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에서 작성함.

〈표 6〉 서울시 가족통합서비스 이용 총수 (2019, 2022~2024)²⁶⁾

(단위: 명)

| 연도 | 가족관계 | 가족돌봄 | 가족생활 | 지역공동체 | 합계 |
|------|---------|---------|---------|---------|-----------|
| 2019 | 168,976 | 55,271 | 48,022 | 501,905 | 774,174 |
| 2022 | 196,785 | 70,560 | 87,492 | 666,180 | 1,021,017 |
| 2023 | 179,007 | 84,131 | 120,683 | 730,881 | 1,114,702 |
| 2024 | 149,773 | 275,418 | 151,896 | 881,247 | 1,458,344 |

이러한 가족센터와 통합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통합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서울시 건강건강가정센터의 사업실적분석보고서부터 가장 최근의 2024년 가족센터의 동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과 2021년은 제외한다. 〈표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이용자는 2019년의 774,174명에서 2024년 1,458,344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분야가 그 밖의 가족관계나 가족생활 분야에 비해 높은 이용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가 많다는 것으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센터 이용자 중 다문화가족의 이용은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기간 3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유형에서는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센터의 최다 이용자는 다문화가족이고 다문화가족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9년도, 서울시가족센터의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에서 작성함.

〈표 7〉 서울시 다문화가족 이용 총수 (2019, 2022~2024)²⁷⁾

(단위: 명)

| 연도 | 남성 | 여성 | 비구분 | 합계 |
|------|--------|---------|--------|---------|
| 2019 | 20,052 | 77,399 | 8,137 | 83,733 |
| 2022 | 26,268 | 79,736 | 10,743 | 116,747 |
| 2023 | 18,834 | 60,142 | 40,353 | 119,329 |
| 2024 | 53,673 | 137,814 | 36,530 | 228,017 |

6. 서울시 결혼이주여성 초점집단면접 조사

지금까지 서울시의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에 대해 검토했다. 센터 통합 시범사업으로부터 10년,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가족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지 6년이 경과했다. 여기서는 가족센터 통합과 다문화가족정책 변화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이다. FGI는 면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동질집단의 경험,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하다.²⁸⁾ FGI에서는 우선 결혼이주 선택 이유와 가족 구성, 그리고 생활에서 어려운 점, 가족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통합된 후의 변화, 그리고 가족센터에 바라는 점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결혼이주여성 간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따라 질문을 조정하며 진행했다.

초점집단은 가족센터 통합 이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이후의 가족센터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고, 현재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4명과 가족센터만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27)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9년도, 서울시가족센터의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에서 작성함.

28) 서경혜, 『질적연구입문』, 학지사, 2024, 176~177면.

〈표 8〉 FGI 참여자 특성

| 구분 | 출신 국가 | 서울 거주 기간 | 자녀 | 국적 |
|-------|-------|----------|----|-----|
| 참여자 1 | 일본 | 21년 | 1명 | 일본 |
| 참여자 2 | 캄보디아 | 12년 | 2명 | 한국 |
| 참여자 3 | 베트남 | 3년 | - | 베트남 |
| 참여자 4 | 베트남 | 15년 | 2명 | 한국 |
| 참여자 5 | 몽골 | 20년 | 2명 | 한국 |

출처: 필자 작성

FGI 참여자의 특성은 〈표 8〉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은 서울시 A가족센터의 추천을 통해 FGI에 참여했고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FGI는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에 익숙한 공간인 가족센터에서 2025년 10월 17일에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됐고 녹취한 내용은 그대로 전사하여 자료화하여 분석에 활용됐다. FGI에 앞서 본 조사는 생명윤리심의를 완료했으며 참여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그리고 원치 않을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했다.

우선 결혼이주 선택 이유 및 가족 구성에서 서울시 거주 3년차인 참여자3을 제외하고는 참여자 모두 유자녀였다. 자녀 수는 1명이 1인, 2명이 3인이었고, 자녀는 학령기 아동과 중고교 학생에서 성인까지 다양했다. 장기 거주 자일수록 20대 초반에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연령 차가 큰 한국 남성과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는데 한국 드라마나 k-pop, 겨울에 내리는 눈 등 한국의 사계절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이주를 결정했다.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이주 선택의 배경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간 세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큰 이유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가족 생계에 너무 어려워서 한국 이미지 드라마나 그런 거 보고, ‘한국 너무

잘 살고 있다. 내가 그쪽에 시집가면 내가 또 잘 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심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동네에서 산 언니가 한국 먼저 시집 왔어요. 왔는데 애기 한 명 놓고 고향으로 놀러 간 거예요. 언니 잘 사는 모습 보고 저도 결심했어요. 한국은 괜찮다. 한국 국제 결혼은 사기 아니다. 그런 그리고 저도 K 드라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한국 한국에서 너무 드라마도 너무 좋았고 저는 장금이 때 봤고 드림 하이도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눈, 저희 나라는 다 여름이 완전 더 눈 구경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 눈 진짜 만지고 싶고 구경하고 싶다. 해서 한국 결혼해도 괜찮다. 결심했어요.”(참여자 2)

“지인 소개로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27살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앨범 그런 거 관심이 많아서. 한국 남자도 드라마 나오는 남자 잘생기고, 한국의 날씨가 사계절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사계절 없어서, 눈 그런 거 많이 좋아해서.”(참여자 3)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공통적으로 언어문제, 시어머니와 남편 등과의 가족관계, 그리고 육아 방식과 음식 등의 문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언어.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생활 속에서는 괜찮아요. 간섭하지 않고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아이 키우는 방법과 불편하고 하는 게 차이는 있어요. 시어머니 손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애기 아프면 감기약이라 이렇게 먹이래요. 집에서 종합 감기약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서 진료 받고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참여자 4)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알아듣기 좀 힘들고, 왜냐하면요 한국어 발음은 어려워요. 제가 살면서 어려움은 좀 없고, 그런데 하나는 있는데, 남편은 맨날 여행할 때마다 둘이 가고 싶는데 맨날 자기 가족을 같이 다녀서 엄청 힘들어요. 그런 점이 너무 힘들고, 한국 사람이랑 저랑 음식 좀 차이, 남편은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는데, 나도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싶는데.”(참여자 3)

“음식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주식을 해서 먹는 거 제일 힘들었어. 음식이. 우리는 또 돼지고기 잘 안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깐, 그게 너무 심하고 양고기랑 소고기를 먹어보고 싶은데 소고기 비싸더라고요. 여기 와서 생각이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렇게 차이가 많구나. 생각하는 것도 엄청 많구나.’ 처음 힘들지만, 지금 제가 참고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힘든 거 많았어요. 처음에는 예, 저 10년 동안 엄청 1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참여자 5)

“우리 남편 얘기 올면은 시끄럽다고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남편하고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건 제일 힘들어요. 신랑이 진짜로 잘 도와주지도 않고, 한국에서 모든 생활 다 제가 다 해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제가 다 해요.”(참여자 2)

“제가 아이한테 일본어를 대화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없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엄마 언어를, 일본어 하면 아이가 말이 늦는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이중언어로 하면 좋은데’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참여자 1)

다음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언어발달지도, 취학이나 입학 설명 프로그램, 상담, 한국어 수업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기초 수업에 비해 심화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적은 것, 강사의 역량이 높지 않은 것,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하지 못한 것, 취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지 않고 적은 것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출신국 언어에 따라 정보접근이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글 입문인데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담당 선생님은 엄청 가르쳐 줘도 잘 집중 안 해서 그런가 따라 못하고, 그런 거는 보조 선생님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3)

“처음에는 좀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서 그 한글말도 되게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점점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선생님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알고 싶은데, 선생님이 좀, 그 알려주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거 실례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좋은 선생님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 찾아 가서 수업 듣고.”(참여자 1)

“저 캄보디아 사람이잖아요. 여기 통번역 선생님 안 계세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로 베트남, 중국 그리고 여기 몽골도 있고, 그 나라 선생님 잘 전달해요. 그런데 저는 저 캄보디아 여기 선생님 안 계시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 못 받아요. 그런데 문자 오긴 와요. 사람 별로 참석하지 않은 프로그램 문자 와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많이 보내는 거 이중언어. 이중언어 그게 많이 와요. 그런데 저한테 안 맞아요.”(참여자 2)

“담당 선생님이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면 되잖아요. 저는 오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귀찮아요. 안 들어가 봐요. 또 들어가면 로그인해야 돼요. 까먹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문자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그 회원한테. 왜냐하면, 딱 좋은 프로그램은 다 찾아. 베트남, 중국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선생님 안 계시니까 못 받아요.”(참여자 2)

“자격증 받을 수 있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식당 가서 설거지 밖에 없어. 자격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많았으면 좋겠다. 자유시간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돈은 벌어야 되고 밤에 5시간 정도면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참여자 5)

“컴퓨터 수업 좀 많이 늘리면 좋겠어요. 오전 오후 다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4)

다문화가족센터의 가족센터 통합 후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나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의 감소 등은 없으며 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로 구분 지워지지 않고 모든 자녀, 가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차별이나 배제되지 않고, 다문화가족만 특별 대우 받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비다문화가족과 어울리면서 육아, 교육, 각종 행정서비스 등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 교육과 남편과의 관계 등 비다문화가족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의 문제나 겪고 있는 곤란을 보편적인 삶의 문제, 젠더 문제로 상대화하게 되고 생활에 대한 긍정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처럼 되고, 안 그러면 따로 따로 있으면 자꾸 따로 따로 마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외국인들은 또 배우고 할 거 가니까.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해서 어울리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5)

“한국 엄마 오면은 우리 정보도 알려주시고, 아이 교육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좋아요. 저는 한국 아이 엄마가 학교 갔을 때 만나게 되는데 아이 엄마랑 얘기 기다리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있다. 여기 수영이 좋아요. 아이 수영시키면 좋다.’ 저한테 소개해주셨어요. 같이 프로그램 하게 되면 서로 만나고 ‘어디서 살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서로 아이 공부 얘기하면서 그런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참여자 2)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 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외국 사람인데 힘든거 있지만 생각보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한국 사람들 힘든 사람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아 아이 들한테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더 많아요. 욕심이 더 많아요.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놀면서 공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엄

마들은 아침부터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이렇게 너무 많이 시켜서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이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힘들다. 그런 소리 들어서 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이들이 놀면서 공부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한국 엄마들이 생각이랑 외국 엄마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공부.”(참여자 4)

“저는 무슨 프로그램 참석한다’ 하는데, 한국 엄마가 ‘부럽다. 한국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 받을 수 없어서 외국 사람만 지원해 주니까’ 해요.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깝다고 한국 사람이 우리 샘낼까 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거 다 뺏아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되니까 좋은 프로그램 다 같이 하고 저랑 제 아이랑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그런 차별 없이 다문화하고 한국하고 분리되지 않아서 좋아요.”(참여자 2)

“통합돼서 좋았어요. 외국인 애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문화가족이다, 한국인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 갔더니, 우리 애는 혼자서 다른 애들은 딱 모아 갖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제일 마음이 아프고 울고.”(참여자 2)

마지막으로 서울시나 가족센터에 바라는 점은 취업 관련 사항이 많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외국인, 다문화, 한국인 구별 없이 국적에 관계 없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지원할 때 그 토픽 자격증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토픽 6급 땀는데 또 이렇게 2년 만기, 2년 또 시험 봐야 되죠. 그런데 요즘 시험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신청할 때 이렇게 기다리고, 3일 정도 신청하는 기간인데 아침부터 기다리고, 컴퓨터 잘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토픽 기간 만기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취업 못 해요. 고 시기를 놓치면 2년 지났으면 토픽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료도 비싸요. 요즘 컴퓨

터도 이렇게 시험 보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만만하지 않아요. 한 10만 얼마, 8만 얼마 그렇게.”(참여자 4)

“전에 제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봤거든요. 그 합격했는데요. 관광통역안내사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바로 다시 시험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에 한 번은 너무해요”(참여자 3)

“저도 다문화강사 활동하고 있거든요. 다이음강사 활동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게 저도 속상했는데. 다른 직업을 지금 공부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를 원하는 데가 없어지나요?”(참여자 4)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이 있는 사람은 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그런 게 해결되면 좋겠다.”(참여자 1)

“저는 수업 끝나면 자격증 만들자마자 취업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3)

“저는 심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우울증으로 병원도 많이 다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상담하고 제가 마음속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엄청 도움이 돼요. 요가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아프다는 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와서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5)

“다문화 혜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고 바꾸지 않은 사람은 대상 안되는 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참여자 1)”

“글로벌쪽으로 그 가족이나 다 같이 글로벌로 같은 혜택이나(참여자 4)”

6. 나가며

본 글은 가족센터 통합 시행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시를 사례로, 주요 정책 수요자인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센터 통합과 그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전달체계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및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센터 통합 이후 이용상의 불편이나 지원 축소를 크게 체감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별도로 분리되어 ‘다문화’로 규정되며 경험하던 낙인과 거리감이 완화되고, 비다문화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감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통합 프로그램 참여는 한국인 부모들과의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개인의 어려움을 ‘다문화’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 보편적 삶의 문제이자 젠더 문제로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자긍감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입학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등 자녀 지원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서적 상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이 높았으나, 한국어 심화과정의 부족, 강사 역량의 편차, 프로그램 다양성의 한계가 개선 과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출신국 통번역 인력의 유무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달라지며 지원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은 취업 관련 자격·디지털 역량 강화 등 자립 기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한국 국적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이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센터 통합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을 포

용하고 2006년 이래 목표로 설정했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기관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본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는 가족센터의 최다 이용자는 여전히 다문화가족이고, 가족통합서비스의 많은 시책들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별도 예산의 별도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다. 가족통합서비스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이용 현황과 만족도 조사,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통합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다문화가족 기본사업이 기존의 방식 그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유형별로 분리, 분단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통합프로그램에 진입 장벽은 없는지 가족센터의 가족통합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는 다양화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맞춰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지원과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획일적이고 전국 단일의 정책 지원 규모는 크지 않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족정책에 포괄하는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과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자녀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일몰사업과 강화사업에 대한 검토, 지역특성화사업의 자율성 증진 등이 고안되어야 한다.

셋째는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연간 사업결과보고서에 있어서는 통합 이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당시의 사업 분류로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가족센터의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전국의 이용자 수, 그리고 가족유형별 이용자 수만 제시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삶터이자 일터인 지역에서 실제 다문화가족정책이 보편적 가족정책에 어떻게 통합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통계와 실태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 고선강 외,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 김정흔,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89-124면.
- 류도향·김청우·강의혁, 「가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문지표 제언」, 『철학·사상·문화』 3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289-309면.
- 박민정 외,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2022.
- 박복순 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송혜림·박정윤·진미정·정지영,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 논의에 대한 제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49-71면.
- 서경혜, 『질적연구입문』, 학지사, 2024.
- 서울시가족센터, 『2022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3.
- _____, 『2023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4.
- _____, 『2024 서울시가족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5.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9 서울시건강가족지원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020.
- 여성가족부, 『20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1)』, 2016.
- _____, 『2017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 _____, 『2022 가족사업 안내(1)』, 2022.
- 이승미·송혜림·라휘문·박정윤, 「가족복지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16면.
- 이혜림, 『경남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경남여성가족재단, 2022.
-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정기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8, 68-103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18.

_____, 『2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23.

_____, 『20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24.

_____, 『20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 보고서』, 2025.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24, 2024.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5>.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6>.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7>.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8>.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19>.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0>.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1>.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2>.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2023>.

| Abstract |

A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Perceptions of the Integration of Seoul's Family Centers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Lee, Jiyoung

This paper examines how marriage migrant women—the primary beneficiarie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perceive the integration of Family Centers and the resulting shifts in multicultural policy, roughly a decade after the integration was implemented, using Seoul as a case study. The findings indicate that marriage migrant women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integrated Family Centers. In particular, they positively evaluate the reduced sense of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being labeled “multicultural” while participating in programs alongside non-multicultural families. Program satisfaction is high for child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school admission information provision, counseling, emotional counseling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key areas for improvement include the lack of advanced Korean courses, uneven instructor capacity, limited program diversity, and disparities in information access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interpretation/translation staff for women’s countries of origin. Participants also call for expanded self-reliance support—such as employment-related certifications and digital competency training—along with less stringent eligibility screening based on nationality and more universal services encompassing migrants more broadly. Overall, the study suggests that Family Center integration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social integr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by alleviating stigma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while highlighting the need for ongoing monitoring of regional patterns of service use and satisfaction, strengthened support that combines universal provision with targeted responses to specific needs, and improved performance management and statistical systems that more accurately reflect integrated operation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marriage migrant women, social integration, Family Centers, migrant

